

화마와 싸운 22년

1970년 어느날, 그날은 시내 모 음식점에서 부부동반 친구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부부동반 저녁 외식은 자주 가지기 어려운 것이어서 무척 흥겨운 분위기였다.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며 반가운 인사속에 식사를 즐기던 무렵 갑자기 요란한 벨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아무 생각없이 반사적으로 좌석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나의 소동에 놀란 식당내 손님들 뿐이었다. 벨소리는 다름아닌 옆집의 시계벨 소리였다.

소방관 직업은 못 속이는군 하며 즐거이 웃는 친구들과 이내 전후사정을 눈치챈 손님들은 식당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때가 소방관생활 3년 재인 때였다.

이제 소방관생활 22년을 맞는다. 다른 직종에서라면 능숙한 일처리와 오랜 경륜에서 오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긋한 기분도 가질 때지만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그러하진 못하다고 생각된다. 화재사고란 것이 곧 인명과 재산피해로 연관되기에 유사시엔 시간을 다투어가며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막상 불길에 휩싸인 건물 앞에 서면 소방초년생이 가지는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항상 대기하는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다. 그래서 앞서의 실수쯤은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갖게된다. 또한 앞으로도 그같은 실수를 나 자신 또한

되풀이할 수 있다.

격일제 근무로 운영되는 소방관생활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업무를 인수 인계하게 되고 이후엔 기타 업무처리와 차량정비, 교육, 훈련 등을 하게 된다.

소방대원들의 진화작업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본방식에 있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발생건물의 주변환경과 용도, 화재정도, 주변도로상태 등을 모두 감안하여 진화작업순서와 세부행동내용을 결정한다.

만약 건물에 갇혀있거나 위험에 처한 주민이 있을 경우엔 이들을 가장 먼저 구조하고, 다음으로는 폭발성 가스가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염의 윗부분에 환기통로를 만든다. 호스를 설치해 불을 이용, 불길을 진압하고 큰 불이 일단 잡히면 화재현장을 면밀히 살펴 불씨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재차 확인을 한

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결된 후엔 청소작업을 해야한다. 이같은 작업을 보다 완벽하고 손쉽게 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자원을 개선해가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어찌 되든지 간에 복구하기까지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85년 겨울, 고된 근무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녘에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며 총장로1가에 위치한 궁전제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다. 반사적으로 장비를 챙겨 소방차에 매달려 달려가니 이미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더욱이 그 건물속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주변사람들의 얘기다.

서둘러 구조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건물안으로 들어가 거의 질식사상태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세사람을 발견했다. 사람들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게 되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공포감이 가득 찬 사람을 안정시키며 천천히 구조작업을 진행시켜야 했다. 그렇지만 결국 한 사람은 구조되지 못해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안겨주었다. 이런 경우를 당할 때면 몸은 더욱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일찍 출동했다더라면, 조금만 일찍 구조작업을 시작했다더라면 그 사람이 생명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민 병 주
(광주소방서 소방장)

때분이다.

대부분의 화재가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이지만 가끔씩은 잘못된 제보로 사태를 악화시킬 때도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소방서 경비원이 화재 발생지점을 잘못 알리는 바람에 작은 헛간에서 일어난 불씨가 무려 2백50명의 생명과 1만8천채의 건물을 잿더미로 만든 일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그런 경험을 가지진 않았으나 장난제보로 인한 어려움은 몇 차례 겪어야 했다.

87년을 마감하는 종무식이 있던 날. 차분히 한해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가며 한 해를 마감하는 하루가 되지 못한 채 그날도 이미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한차례 출동을 한 후였다. 소방관들의 종무식이야 화재현장에서 하는게 당연한 것이겠지 하며 연말기분속에 동료들과 장비를 정리했다. 내심 이게 올해 마지막 출동이길 기원하며 한숨을 돌리려할 때 또다시 출동벨이 울려댔다. 유동삼 거리에 위치한 한 맥주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연말이고 유흥음식점이어서 인명피해나 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사고지점에 도착한 시간이 해가 바뀐 88년 1월 1일 0시 05분. 올해는 진짜 시무식 한번 빨리 한다며 진압준비를 하려했지만 화염은 커녕 화재현장이면 의례히 있는 소란스러움도 없는 조용한 밤거리였다. 재야의 종소리가 서운함과 희망의 여운을 채 감추기도 전에 허위신고로 새해를 시작해야 했던



그때가 지금도 장난전화하면 떠오른다.

하지만 소방관생활이 항상 이런 어려움만으로 이어지는 생활은 아니다. 앞서 궁전제과점 화재사고 때도 구조받았었던 두 사람으로 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귀한 인명은 물론 재산도 지킬 수 있었음을 발견할때엔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소방관의 사명의식은 바로 이러한데에서 얻어진다고 생각된다.

일년중 절반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야 하고 명절이나 공휴일, 이상기온일때면 어김없이 치뤄지는 비상근무에 가족들은 물론 친지들에게도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제16회 소방안전봉사상을 받게 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박봉의 어려운 여건을 큰 인내

로 참고 지내온 아내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 자신 소방관으로서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을 임부로 여기고 봉직해 왔으나 소방관생활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아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나를 말없이 식려해주며 도와주었던 가족들과 동료들, 국가인설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수상은 바로 소방인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다른 모든 소방인들과 함께 더욱 정진해갈 것을 다짐해본다. (●)